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년  
뉴스레터 9월호

## <차례>

- 01 연구집담회
- 02 HK기획연구
- 03 일본전문가초청  
세미나
- 04 학술교류  
연변대학 방문 보고
- 05 지역전문가양성  
지식정보DB
- 06 도서소개  
연구소 향후 일정

## [연구활동]

### 연구집담회

일본연구소는 국내외 일본연구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연구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역학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 4회 집담회

**주제:** 한일관계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한일관계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시론  
**발표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 제 5회 집담회

**주제:** 근대 일본 여성 그리스도인과 ‘생활’  
- 羽仁もと子(하니모토코)와  
「婦人之友」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집담회 요약문

남기정(일본연구소 교수)

남교수는 한일관계의 통합적 이해를 위해 나름의 틀을 갖고 구조적, 포괄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시론으로서 이번 연구를 위치지었다. 남교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국제정치의 세 가지 이론틀로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했다. 이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기지국가와 전장국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일본을 냉전체제하에서 자국의 안보 주권을 유보하지만 냉전체제하의 기지(base)로서 작동한 일본과 냉전 체제하의 전장(battle field)으로서 작동한 한국이 어떻게 보통국가화되면서 탈냉전, 탈식민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과정을 남교수는 한국의 근대화(민주화/산업화)와 자주화(통일자주화/분단자주화),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민주화/산업화)와 자주화(평화자주화/안보자주화)라는 틀 속에서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 매트릭스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를 각각의 사례분석을 통해 6가지의 매트릭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남교수는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은경(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근대 일본 여성 저널리스트이자 교육자, 그리스도인이었던 ‘하니 모토코(羽仁もと子, 1873-1957)’의 생활에 관한 연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근대 일본인의 일상 생활에 미친 영향, 그 결과로서의 일상생활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중간층이 대거 발생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 도시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한정된 봉급으로 도시문명 발달과 인플레이, 해고와 가족내 환자 발생 등의 다양한 위험을 견뎌내야 했던 중간층의 삶을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입각해서 해결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생활이 밀착한 그의 평생의 업적인 ‘생활합리화 운동’이, 15년전쟁기에는 총동원체제에 동원되어 협력해가는 양상을 밝히고, 여성 그리스도인의 전쟁책임에 대한 문제 등 금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01

## HK기획연구 - 진행상황

### <전후 일본의 지식형성>

지식형성팀은, 9월 9일 첫 모임을 갖고, 전체연구 방향과 각자가 담당할 테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다. 기본적으로는, 전후 점령기 동안 각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한 지식인 혹은 생활인 그룹을 대상으로, 그들이 남긴 텍스트와 활동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전후 사상형성 과정 및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후 세미나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주제를 구체화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 모임에(10월 15일)는 각자 전공분야에서 해당 주제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도서를 지참하기로 했다.

### <지역과 정체성>

지역과 정체성 연구팀은 9월 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기획연구의 원칙과 각자가 담당할 소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을 통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시적 변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변동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기본적인 관점을 확립하는 세미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0월 9일에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는 일본사회의 거시적 변동과 더불어 왜 지금 지역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논문 2편을 선정하여 리뷰하기로 하였다.

### <현대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

현대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팀은 8월 20일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주제가 제안되었다.

- '일본'의 전통을 지키는 '외국인':  
니시진 오리모노를 만드는 조선/한국인들
- 현대 일본 신사와 기업문화:  
이나리신사를 중심으로
- 지역 전통산업의 문화적 표상화:  
天童市の 장기말 산업과 관련하여
- 기모노의 '포스트모던':  
안티크 기모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제도적 변천으로 본 전통경관의 생산
- 일본 전통 문화의 현대적 모색:  
오카미숙(女将塾)의 설립과 그 운영을 중심으로
- 현대 일본사회에서의 게이샤의 존재양상:  
대중과의 소통의 면면

### <전후 일본의 생활세계와 동아시아>

전후 일본의 생활세계와 동아시아 연구팀은 이하의 세부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제안된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 1부 <담론과 인식>에는 전후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과 냉전의 영향/ 전후 보수진영의 아시아 담론/ 일본인의 해외여행과 동아시아 체험의 집단기억화,
- 2부 <정책과 제도>에는 일본 정당정치의 전개와 동아시아 외교/ 일본의 법제도 변화에 미치는 동아시아 요인 분석/ 전후 일본의 산업재편과 동아시아 요인: 한국전쟁의 영향을 중심으로,
- 3부 <표상과 문화>는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외교와 일본의 소프트파워/ 네트워크와 '특정아시아': 2ch의 극동아시아 게시판의 중심으로/ 일본 음악교과서에 소개되는 아시아 음악 분석/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전개 등이다.

## 일본전문가초청세미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들에게 올바른 일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계의 일본전문가와 함께 일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 온 ‘화요세미나’의 106, 107번째 장이 9월 8일과 9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 106회 (9월 8일)

주제: ‘재일’ 아이덴티티와 일본연구

강연자: 윤건차 (가나가와대학 외국어학부 교수)

- 107회 (9월 15일)

주제: 일본에서의 사물과 민속지식 - 한국과의 비교

강연자: 이토 아비토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연구원교수)



##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요약문

### ‘재일’아이덴티티와 일본연구

윤건차

지난 9월 8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에서 가나가와대학 국제학부 교수이신 윤건차 교수님께서 ‘재일’ 아이덴티티와 일본연구라는 주제로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발표를 하였다. 윤건차 교수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설명하며, 재일조선인을 일본과 조선의 역사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니치(在日)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근현대사, 즉 반봉건의 투쟁, 식민지 근대의 강요, 반식민지적 남북분단이라는 조선의 근현대사와, 서구열강의 일본 침략, 천황제 국가의 창출, 아시아 침략이라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자이니치성(在日性)’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건차 교수는 그 핵심이 민족이라거나 국가, 조국이나 고향, 전통, 문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신’ 내지 ‘내력(來歷)’의 자각이나 거기에 구애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일조선인은 좋은 실든 예전의 종주국이자 과거를 사죄하지 않은 일본 땅에서, 식민지 조선과 남북분단을 질질 끌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자각해야만 ‘자이니치(在日)’는 강하게 살 수 있다는 지적하며 발표를 마쳤다.

### 일본에서의 사물과 민속지식 - 한국과의 비교

이토 아비토 (伊藤亞人)

지난 9월 15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21호에서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연구원 교수이신 이토 아비토 교수가 일본에서의 사물과 민속지식이라는 주제로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를 하였다. 이토 아비토 교수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토착민속문화의 전통과 일본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즉, 토착민속문화의 전통으로서 사람과 사물의 연속성, 상호성, 비체계적 사고, 즉물성, 구체성, 상황성을 꼽으며 이러한 민속신앙, 민속지식의 전통이 보편적인 종교 이데올로기를 회피하고, 경험의 축적과 실천을 중시하며, 혁신회피와 부분적 변경에 의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일본사회의 특수성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토 아비토 교수는 일본의 과제를 자기자신의 세계관, 사고양식에 있어서의 주변성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논리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주변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민속지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 일본사회,문화의 현실을 감안한 일본적인 방법으로 공헌할 것을 배우는 것을 꼽았다.

## [학술교류]

### 연변대학 방문 보고

서동주(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지난 8월 21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대학에서 열린 제1회 중일한조(中日韓朝)언어문화비교연구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단과대학에 해당)과 연변대학 일본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연변대학 개교60주년 그리고 일본어전업(專業, 한국의 학과)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연변대학은 1949년 4월 길림성 직속 대학으로 설립된 이래 몇 차례의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는 10개의 학부와 70개의 전업으로 구성된 조선족 중심의 중점종합민족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일한조언어문화비교라는 심포지엄 타이틀이 보여주듯이, 이번 행사는 외형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일본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성격을 표방했지만 처음 갖는 행사였기 때문일까 연변대학 혹은 중국의 교육·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일본과 한국의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다.

8월 22일 하루 동안 열린 심포지엄은 12개의 분과로 나뉘어 총 126개의 개인연구발표가 있었다. 상당수의 발표자들이 일본어 및 일본문학(문화) 분야의 전공자인 탓에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비교연구의 성과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전공과 관심의 차이를 넘어 최근의 인구와 상품의 초국적 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되는 다문화 간 이해와 소통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본 연구소가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된 것은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연구성과의 국제적 발신력을 높인다는 원론적인 의미 외에도, 본 연구소와 연변대학 간의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상호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교류의 내용에 대한 윤곽을 잡기 위한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다. 다행히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장인 권우 선생과 일본학연구소장인 이동철 선생은 본 연구소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각종 편의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연일 이어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강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어 향후 교류협력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연변 그리고 연변대학은 현재 본 연구소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연구·교육기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장차 중요한 교류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변대학의 일본학연구는 언어와 문학 전공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 유학을 경험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연변대학이 축적한 그간의 연구성과는 일본을 외부의 시각에서 상대화하며, 동시에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귀중한 자료와 학문적 자극이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동북3성이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독특한 다문화 상황을 경험해 왔으며, 오늘날도 그 유산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조선족의 초국적 이동이 한국과 일본사회의 아이덴티티에 중대한 변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연변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대일본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변용을 동아시아라는 맥락에서 보고자 할 때, 연변이란 지역은 중요한 필드로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소박하지만 분주함이 넘쳤던 연길은 독특한 다문화적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간판은 거의 예외 없이 중국어와 조선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북한의 음식점 건너편에 한국에서 건너온 체인점이 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마다 자리를 잡은 아마도 조선족이 운영하는 듯한 작은 수퍼(超市)에는 한국의 물건이 넘쳐나고 있었다. 물론 거리를 누비는 택시의 상당수는 일본제였지만, 적지 않을 수의 한국산 자동차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이라는 구별되는 국민국가의 상품이 어지럽게 공존하는 말 그대로 다문화적인 공간이었다. 너무 빨리 달리는 자동차와 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돌쫓달리는 가격에 당황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달리 보면 이곳이 줄 수 있는 이문화 체험이라 생각하니 충분히 즐거웠던 것 같다. 첫 여행이라 조금은 두렵고 조심스런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손에 닿을 듯이 낮게 펼쳐졌던 연변의 파란 하늘을 다시 보고 싶다.



## [지역 전문가 양성]

### 교수인솔 현지조사 한일합동세미나 발표회

본 연구소가 주관 하에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도쿄와 고베, 교토에서 진행된 2009년도 교수인솔 일본현지조사 및 한일 합동세미나의 발표회가 9월 17일 국제대학원 GL-Room에서 열렸다. 일본연구소 한영혜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일본 방문 기간 중 촬영한 비디오 상영과 필드워크 팀별 발표가 이어졌다. 필드워크 팀별 발표의 주제와 팀원은 아래와 같다.

- 일본국회, 일본민주당사: 강유민(국제대학원) 권경인(국제대학원) 조인경(국제대학원)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본부: 김태진(국제대학원) 사사노 미사에(국제대학원) 변혜원(인류학과)
- 나가타 유카타마츠리: 조현정(국제대학원) 양지영(국제대학원) 배기철(법학전문대학원)
- 다카토리커뮤니티센터: 이미현(국제대학원) 이경림(국문학과) 조태호(국제대학원)
- 우토로, 히가시구조: 정미연(고고미술사학과) 이지혜(국제대학원) 최가영(국제대학원)



### 교수인솔 현지조사연수단 일본대사관 방문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대사의 초청으로 9월 18일 교수인솔 현지조사연수단의 일본대사관 방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소 한영혜 소장과 남기정 교수의 인솔로 이루어졌으며 일본대사관의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와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 [지식정보DB]

### 연구소 홈페이지 소개

지난 8월 새롭게 편성하여 오픈한 홈페이지는 보다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리를 하여 만들어졌다. 홈페이지 공간을 통하여 일본 연구소의 정보를 외부에 발신할 뿐 아니라 내부의 인원들이 쉽게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연구소 내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도서소개]

이번 달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자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본 연구소 일반연구원이자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김영 교수님이 번역하신 『현대 일본의 생활보호체계』와 본 연구소 HK 연구교수 이지선 박사님이 쓰신 『일본의 전통문화』를 소개합니다.

### 현대 일본의 생활보호체계

오사와 마리 지음, 김영 옮김,  
후마니타스, 2009

이 책은 역사적,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가 가진 특성을 규명하고, 최근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책은 젠더 관점에 입각해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의 위상과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 산업사회 중 어떤 사회보다도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형인 현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가 21세기로의 전환기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재 일본 사회의 생활보장체계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고 분석하며, 참여자가 협동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적 경제와 일원화된 연금제도를 통해 '희망의 길'로 나아갈 돌파구를 모색한다.

### 일본의 전통문화

이지선 지음, 제이앤씨, 2008

이 책은 오늘날 일본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문화를 총 15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통문화 중 정적인 면이 강조된 다도(茶道)와 이케바나(生け花), 동적인 측면이 강한 스모와 마쓰리(祭り), 생활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기모노와 연중행사(年中行事), 살아 움직이는 전통문화라고 불리는 게이샤(藝者), 조형예술이자 공간 예술인 일본정원, 시각예술인 우키요에(浮世繪), 무대예술인 노(能), 교겐(狂言), 분라쿠(文樂), 가부키(歌舞伎), 라쿠고(落語), 일본음악으로 나누어, 각 주제마다 그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예비지식을 쌓는 자료로서도, 일본 전통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내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 [연구소 향후 일정]

### 연구집담회

연구집담회의 예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 주제 : 제국일본의 음악정책
  - 중일전쟁 전후의 음반검열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이지선(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 토론자 : 이준희(성공회대학교 강사)
- 일시 : 10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 주제 : 근대 일본불교의 동점(東漸)
  - 북미 개교(開教) 1세기를 평가하며 -
- 발표자 : 윤기엽(일본연구소 연수연구원)
- 토론자 : 신규탁(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일본전문가초청세미나

- 일시 : 9월 28일 월요일 오후 12시
- 주제 : 일본문화에 있어서 사람을  
신으로 숭앙하는 풍습에 대한 재해석
- 강연자 :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일본문화연구센터)
- 일시 : 9월 29일 화요일 오후 12시
- 주제 : 일본 근세의 외교정책의 기축
- 강연자 : 허남린(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제 10회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제 10회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3일 한일학교간 교류와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학습법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워크숍도 열릴 예정입니다.